

배터리·야외 촬영템부터 '100만원 캐시백'까지

휴가철 '인생샷 카메라' 사고 선물 받아주세요

캐논 18만원 상당 배터리·메모리카드
소니 정품등록 시 방수 무선이어폰 등
니콘 내셔널지오그래픽 정품 솔더백
후지필름 최대 100만원 캐시백 이벤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카메라 업계가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사은품과 캐시백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캐논은 오는 8월 31일까지 대표 하이엔드 DSLR 카메라 구매자를 대상으로 '캐논 풀프레임 No.1 구매 찬스' 및 'EOS 80D 스마트 구매 찬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행사기간 내 캐논 EOS 5D 마크 IV와 EOS 6D 마크 II, EOS 80D 등 풀프레임 DSLR 카메라를 포함한 주요 하이엔드 DSLR 카메라 구매자에게 최대 18만원 상당의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 슬라이드 스트랩 등 야외 촬영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아이템을 제공한다.

선택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샌디스크 익스트림 CF 메모리 카드'와 'SD 메모리 카드'는 빠른 전송 속도와 안정성을 갖춰 고해상도의 이미지와 영상을 안정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픽디자인 슬라이드 스트랩'은 간편한 탈부착 시스템과 원핸드 스트랩 길이 조절이 가능해 여행용 카메라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소니 여름 프로모션. /소니코리아

소니는 미러리스카메라와 하이엔드카메라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정품등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우선 소니 렌즈 교환식 카메라 알파(a)는 오는 8월 16일까지 a7 II, a6500, a6300, a6000, a5100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해당 제품을 구매한 후 8월 19일까지 소니코리아 고객지원사이트에서 정품등록 및 사은품 신청을 완료하면 제품에 따라 다양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a7 II, a6500, a6300 구매 고객에게는 배터리 충전기 또는 스포츠용 방수 노이즈 캔슬링 무선 넥밴드 이어폰을, a6000과 a

5100 구매 고객에게는 전용 배터리 또는 스포츠용 방수 무선 이어폰을 증정한다.

소니 RX100 시리즈 프로모션은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에 소니 RX100 시리즈를 구매 후 10월 7일까지 정품등록 및 사은품 신청을 완료한 모든 고객에게 여행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행용 충전기 키트를 증정한다.

니콘은 니콘 카메라와 니코르 렌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이벤트 대상 제품은 니콘의 인기 DSLR 카메라 6종과 아웃도어 카메라 1종, 니코르 렌즈 4종이다.

DSLR 카메라 제품군 구입 시에는 정품 배터리와 128GB 메모리카드 세트 또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솔더백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아웃도어 카메라의 경우 정품 배터리나 전용 실리кон 케이스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또한 니코르 렌즈군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렌즈 보호용 제품인 니콘 NC 필터를 제공한다.

오는 8월 19일까지 제품을 구입하고, 8월 24일까지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품등록, 무상서비스 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 후 경품을 선택하면 된다. 경품 선택은 8월 31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후지필름은 자사의 중형 미러리스 카메라 GFX 50S 및 GF 렌즈, 영상 강화 미러리스 카메라 X-H1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내에 중형 미러리스 카메라 GFX 50S와 GF 렌즈 8종, X 시리즈 플래그십 제품인 X-H1을 구매하고 9월 7일까지 후지필름 공식 홈페이지에 정품 등록하면 자동으로 접수된다.

GFX 50S 바디는 구입 시 100만원 캐시백을, GF 렌즈는 기종에 따라 최대 40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후지필름 프리미엄 서비스인 GFX FPS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게 될 경우 캐시백과 함께 20만원의 웰컴 리워드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X-H1 바디를 단품 또는 배터리그립 키트로 구매하면 각각 30만원의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후지필름의 'X-H1'



'스팸 아닙니다'... 오피스형 발신알리미 출시

KT 발신알리미 1개월 무료 이벤트

KT가 유선전화 부가서비스 '발신정보알리미 오피스형'을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1개월 무료 이용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KT 유선·인터넷전화 고객이 상대방 이동전화로 발신 시 회사 상호명 등 미리 설정한 정보를 상대방 수신 화면에 표시해주는 서비스다. KT는 오피스형 상품에서 이통3사 고객의 휴대폰에 발신정보명을 표시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광고 등 불필요한 전화로 인해 모르는 전화번호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KT가 유선전화 부가서비스 '발신정보알리미 오피스형'을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9월 말까지 1개월 무료 이용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KT

이로 인해 시군구청이나 은행지점, 서비스센터 등 전화로 필수정보를 전달하

거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곳에서 고객과 소통 어려움도 증가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발신정보알리미 오피스형은 월 1만6500원(VAT포함)에 6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 무료 이용 이벤트를 진행하며, 서비스 문의 및 가입 상담은 100번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이용하는 기업은 발신정보명 표시로 고객에게 통화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부재중 전화에도 발신정보명을 표시해 콜백 유도가 가능하다. 전화를 수신하는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전화와 불필요한 전화를 구분할 수 있어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안병도 기자



권해진 KT INS운용센터장이전국 1천500곳의 미세먼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소개하고 있다. /뉴스1

KT, 전국 1500곳서 미세먼지 실시간 관리

경기도 과천 통합관제센터 공개 미세먼지 요인 분석해 대책 마련

KT가 전국 1500곳의 미세먼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공개했다. 경기도 KT과천타워 7층에 있는 KT 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가 바로 그곳이다.

15일 KT에 따르면 KT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 입구 모니터에는 전국 지도가 나타나 있다. 전국 공기질 정보를 나타내는 에어맵(Air Map) 상황판은 공기질을 색깔로 표시해 준다. 초록색은 '미세먼지 보통', 파란색은 '미세먼지 좋음'이란 의미다. 미세먼지가 많아 나쁜 날은 노란색이며 최악인 날은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KT는 작년 9월부터 에어맵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전국에 공기질 관측망을 세웠다.

관측 장비 하나가 커버하는 면적은 약 500㎡로 서울 기준 정부 측정망보다 조밀하다. 정부가 서울에 설치한 측정소는 작년 말 기준 25개이며 개당 탐지면적은 14㎢ 정도다.

KT는 자사 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미세먼지 영향 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저감 대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미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울산 미포·온산 일대 산업단지에 공기질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는 공기질 관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10여곳과도 협력 중이다. 경북 영덕군은 KT의 실시간 공기질 데이터를 자체 웹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에게 제공한다.

강릉시는 미세먼지 발생 경로를 살수차 동선 설정에 활용하고 있다. KT는 올해 안에 미세먼지 정보 앱도 선보일 계획이다.

KT의 환경안전사업담당 이광욱 상무는 "미세먼지 측정 정보를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결합하면 공장, 어린이집, 체육관 등에 미세먼지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확산을 예측해 모바일로 사전 경보 문자를 제공하거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KT는 정부 저감 정책을 지원하는 등 공공성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수익사업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측정 장비에 대한 정부 가이드가 없는 점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1면 'LG 구광모 체제'서 계속

구광모 LG그룹 회장, 핵심사업부 조정 전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재직시에도 CJ헬로 인수에도 관심을 보이는 등 공세에 능한 업무 스타일이다.

LG그룹 핵심인 LG전자·LG화학·LG유플러스·LG생활건강·LG디스플레이 등은 지난해 비교적 좋은 실적을 거뒀으나 올해에는 악화된 경영 상황을 맞고 있다. 따라서 권 부회장은 주력 계열사를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그룹 전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으며, 지주회사에서 이들 핵심 사업부를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에서는 구 회장이 LG전자 재경부문 대리 경영수업을 받을 때 권 부회장도 CFO자리에 있었던 개인적 인연도 영향을 끼친 것이라 의견도 있다. /안병도기자

LGU+ "IoT로 '꿀잠' 주무세요"

사용자 맞춤 수면 가이드 제공

LG유플러스가 수면상태를 측정하고 분석해 건강한 수면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IoT속면알리미' (사진)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이용자의 호흡과 맥박, 뒤척임 수 등을 측정하고 분석한다. 이후 종합적인 수면 상태를 이해하기 쉽게 점수로 환산하여 스마트폰 앱에서 표시한다. 잠든 시간과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깊은 잠과 얇은 잠의 비중 등의 수면 정보를 하루와 한주, 한달 단위로 알려주며 사용자에게 맞는 수면가이드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의 '얇은 잠 알람' 기능은 일어나려고 설정한 시간대에 얇은 잠이 측정되면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려 편한 기상을 돕는다. /안병도 기자



LG유플러스는IoT속면알리미가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불면증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과 잠이 부족한 수험생들의 수면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병도 기자

LG유플러스 홈IoT 플랫폼인 IoT@home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IoT기기와 연동해 함께 사용하면 좋다. /안병도 기자